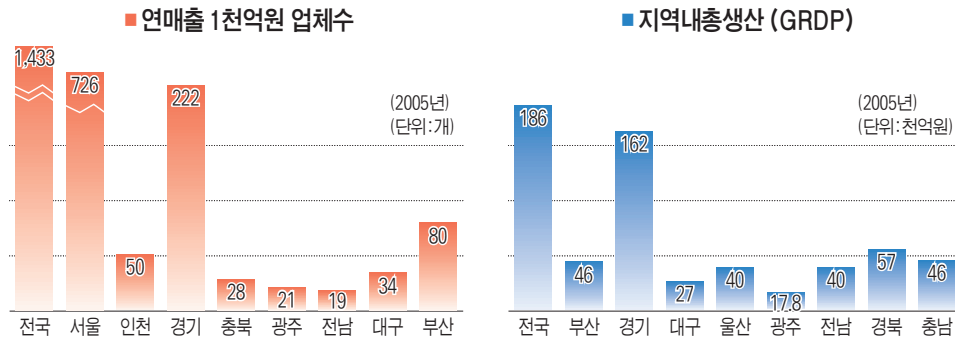


창사 55 특집

###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1 지역민, 정신 바짝 차려야

군이 경제지표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광주·전남은 지난한 삶의 궤적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든 지역민들이 경제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할 때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리드로 모색한다.



광주·전남이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구 충장로를 지나는 인파.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언제까지 '경제꿀찌' 할건가

각종 경제지표로 본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올해 1·4분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제조업의 지역내 총생산 (GRDP)과 수출증가율 등 일부 지표는 그전대로 순항하고 있으나, 건설·소매업 등 대부분 분야는 벌써 수년째 둔화세를 보여 당분간 희망을 건지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기업체는 물론 지역민 스스로 지역 발전에 대한 미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내고자 제품 및 주식 사주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얼초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제조업 지역내 총생산은 2004년 9.6%, 2005년 15.3% 증가하는 등 2000~2005년 평균 7.0%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증가율도 2001~2006년 광주 18.9%, 전남 24.2%로 연평균 20% 안팎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00~2005년 5.0%로 IMF 이전보다 3.7%포인트 하락했고, 전남도 4.7%나 추락해 16개 시·도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2005년 제조업을 포함한 광주지역 산업 총생산은 17조8천억원으로 제조주(7조3천억원)를 제외하고는 전국 꼴찌였다. 특히

**성장률 IMF 이전보다 하락 '충격'**  
**광주 총생산 강원·전북에도 뒤져**  
**외양만 추구 말고 실리를 챙길때**  
**지역민 모두 경제주체로 나서야**

광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1천242만6천원으로, 대구(1천577만원)를 앞섰을 뿐 강원(1천489만4천원)이나 전북(1천351만원)에도 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설비·건설투자 역시 둔화세를 보여 광주는 2000~2005년 연평균 건설투자액이 2조4천억원으로, 1995~1996년 2조8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 감소했고 전남은 7조원대에서 6조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국제통계연보'에서도 광주·전

남지역의 열악한 경제상황은 뚜렷이 나타난다.

연간매출 5천억원 이상 업체수가 전국(382개)의 1.83%인 7개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대구·경북은 14개(3.66%), 부산·경남은 19개(4.97%)에 달했다.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수도 광주 8천162개, 전남 1만1천283개를 합쳐 1만9천445개로 전국(33만3천313개)의 6%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광주지역 흑자법인은 광주 69.7%로 집계돼 10개 가운데 3개 업체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제지표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사회 각 구성원이 실리가 아닌 외양만을 쫓은 결과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모든 지자체와 기업을 비롯한 모든 지역민들이 책임있는 경제주체로 나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적 운동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중태기자 jtleee@kwangju.co.kr

### 특별기고



박성수

세상이 갈수록 변하는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으니 살아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솔직한 심경이다. 땀 흘려서 노력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 고단하다.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일터가 보람있고, 특히 우리가 태어나서 꿈을 키워 온 우리의 고장이 보다 더 잘 사는 곳이라면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여 나가기에 더 쉬울 텐데 말이다.

광주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전남은 9개 도 중에서 소득수준과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서 말아놓고 만년 최하위권에서 맴돌아 취약한 경제 인프라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청년실업률, 수입차 비중 등 바람직하지 못한 통계지표에서는 수위를 다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이런 불명예를 털어버리기 위해 모두 나름대로 애쓰고 있음은 잘 알고 있다. 열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은 앞장서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경영마인드는 곧 주인의식이다

99%가 넘는 중소기업들은 올창간 경제세를 만드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백방으로 뛰어나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는 교육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왜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의 경영마인드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영마인드는 결코 특정 리더들의 전유물은 아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녀야 할 마인드인 것이다.

경영마인드는 다름 아닌 주인의식이다. 결국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겠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경영마인드를 갖는 대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각자가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의식들을 함께 묶어 공유가치를 전파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학연관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내는 주춧돌이라고 하겠다.

가족이 자기 가정에서 사람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아낌 받기를 바라는가?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정성들여 만든 제품들을 우리는 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국시장에서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일자리 하나 더 만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고향에 남아 일하기를 기대하는가?

깊이깊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일이다. 이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경영마인드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 녹차 수급조절 능력 키운다

정부가 녹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급 조절 능력을 기르고 생산·유통 기반 확충과 품질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녹차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재배면적 증가와 수입 확대에 최근 녹차산업의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녹차 재배면적은 2005년에 3천42ha로 1995년 715ha의 4.3배 수준까지 늘었고, 녹차 및 관련 조제품 수입량도 같은 기간 335에서 2천982으로 급증했다.

농림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녹차 재배 면적 확대 계획을 조정하고 전문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수급동향 및 전망 결과에 따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재배면적 적정 유지·품질강화 등**  
**농림부, 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해나갈 방침이다.

또 한국차생산자연협회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 생산자의 자체 수급조절 능력 배양도 유도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10가지 우량 신품종을 개발하는 한편, 녹차 재배업자들에게 기계화나 관수 등 관리가 쉬운 평야지역에 다원을 조성해 경영비를 줄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신활력 사업 등과 연계해 녹차를 지역특화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한다.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녹차 생산을 유도하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 혐미혼합 녹차의 관세율이 40%로 일반 녹차(51.3%)보다 크게 낮은 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품목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부동산 하락맨 LTV·DTI 완화 필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 금감원 관계자 “부동산 버블 금융부실 야기 될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LTV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

가 취약한 저층은행, 대부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동산 버블 붕괴 가능성과 관련, "주택가격/가처분소득(PIR), 매매/전세가격(PPR) 등 각종 지표로 평가하면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 거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격 왜곡 원인이 해소되면 시장 가격은 실제 가치로 회복하려는 속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TV 규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 속도를 제어, 간접적으로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한국·인도·태국·필리핀 또 다른 외환위기 가능성”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난 98년 외환 위기를 겪은 아시아 4개국이 또 다른 통화 소요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의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발트 해역 3개국이 경기 과열로 타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신용시장 고성장 '틈새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ESCAP은 18일 제네바와 뉴욕 및 방콕에서 동시에 발표한 '2006년도 아태 경제사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이 빠른 성장 속에 '일부 균열'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들 아시아국이 환율을 '관리'하는 것이 올해 이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지난해 이들 4개국 통화의 대(對)달러 가치가 크게 오른데 이어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시아 4개국이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높은 성장상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들 가운데 말레이시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은 올해 새로운 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연합뉴스〉

### 국세 체납 골프회원권 압류 호남 99명

최근 국세를 체납해 국세청으로부터 골프장회원권을 압류당한 체납자 1천여 명 중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대상자도 99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골프장회원권이 있으면서도 국세를 체납한 1천350명에 대해 골프장회원권을 압류했는데 이중 광주청 관내 광주와 전남·북 지역 대상자도 99명에 달했다.

광주청은 이중 66명으로부터는 2억9천800만원의 징수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5억1천700만원의 체납을 확보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청 관계자는 “고가의 골프장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위”라며 “회원권을 압류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즉시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중태기자 jtle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신원전자정밀(주)	제조업 전기담당자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4/21	062-944-8471
중앙생명보험(주)	2007 신입(인턴)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1	062-226-4904
우호원	보전/공무 기능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2	062-945-8311
상오정밀	LG 사출기능공 모집	고졸/경력3년	2200~2400	04/23	062-955-2900
스피드피워넷	일반사무 및 경리 직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24	062-514-3220
세월엔비전	광주센터 기술상담(인바운드)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800~2000	04/25	02-2163-4125
세신전자(주) 정성공장	경리/회계 업무 담당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26	061-394-4477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주)호남	정규직 승강기 영업인력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7	062-512-7788
남선석유(주)	[경력]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품질관리인 채용	대졸/경력1년	2400~2600	04/27	062-221-5180
삼성화학(주)	개발부 채용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28	062-951-8001
광주부광주전남지역본부	직영점 점장 및 팀장급 사원 채용	초대졸/경력11년	회사내규	04/30	062-265-0963
윙프라이프레스토랑	레스토랑 영업 및 서빙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653-4800
하이룩코리아(주)	정규 국내영업부 모집 - 전남 광주 근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51-970-0838
유경하이테크	납품관리 영업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956-845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